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제17480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6년 6월 22일 (음력 5월 27일) 목요일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일원 78만 평의 부지에 3천4억원을 들여 건설 중인 무안국제공항. 지난 1997년 공사가 시작돼 현재 8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나 건교부의 기본계획 변경으로 2008년 개항이 불투명해졌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무안국제공항 2008년 개항 무산

건교부 기본계획 변경…완공 시기 또 늦춰

무안국제공항의 2008년 개항이 불투명해졌다.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21일 전남도에 보낸 '무안공항 기본계획 수립 관련 의견조회'를 통해 '무안공항 개발사업은 2003년 준공 예정이었으나 그간 사회적·경제적 여건변화 등으로 부득이 투자계획을 조정하게 됐다'며 '사업기간을 1997년에서 2008년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건교부는 그동안 무안국제공항 개발완료 시기를 투명하게 밝히지 않아 명시적으로 확정·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셈이다.

건교부는 당초 무안공항 개발계획의 사업기간을 1997~2003년까지 7년간으로 잡았으나 새로 마련한 '무안공항개발 기본계획 변경(안)'에서는 1997~2008년까지 12년간으로 변경함으로써 공항 완공을 5년간 늦췄다.

건교부는 변경사유와 관련 '무안공항의 항공수요와 경제적 타당성 재검토 결과 및 국가재정운용·투자계획 조정에 따른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이유로 들었다. 무안공항의 항공수요가 적어 개항하더라도 당분간 적자운영이 불가피하고, 공항건설비가 국가재정운용상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이 같은 방침은 그러나 전남도와 무안군 등이 그동안 수십차례 요청해온 '무안공항 2008년 개항'을 사실상 어렵게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무안공항 기본계획 변경(안)에서 '사업기간'이란 '공항 완공'을 뜻하는 것으로 개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2008년 말 공항이 완공되는 만큼 2008년 개항은 사실상 어렵다"고 못박았다.

전남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남도는 '무안국제공항은 나주혁신도시와 무안기업도시, J프로젝트 등 전남도가 추진하는 각종 전략사업의 핵심 기반시설인 만큼 공항개항이 늦춰질수록 이들 사업의 전망도 함께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김영후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지난 14일 전남을 방문한 건교부 차관이 2008년 개항을 약속했는데 또 다시 개항일정이 2008년 이후로 늦춰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며 "건교부의 이번 의견조회에 대해 '무안공항 완공일을 2007년으로 앞당기고 늦어도 2008년 상반기까지는 개항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강력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안국제공항은 망운면 피서리 일원 78만 평의 부지에 3천4억원을 들여 건설된다. 지난 1997년 공사가 시작, 현재 8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무안공항은 당초 2005년 개항을 추진해왔으나 지난 2004년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2006년 이후로 개항시기를 연기한 상태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DJ '6월말 방북' 연기

정세현 실무대표 공식 발표…"미사일 돌출상황 영향"

오는 27일께로 예정됐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6월 방북계획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 등의 변수에 따라 전격 연기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 실무접촉 수석대표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1일 오전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돌출 상황 때문에 지난 5월 합의가 됐던 6월말 방북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며 방북연기 결정을 공식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정 전 장관은 또 "(현재) 6월말 방북은 어렵게 됐고 미뤄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방북초청은 여전히 유효하고 김 전 대통령께서도 여러가지 준비를 많이 해 오셨기 때문에 차기 실무접촉을 위한 날짜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정 장관은 그러나 차기 실무접촉 일정과 관련, "북쪽도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날짜를 못 박아서 하는 것이 좀 그렇다"며 "어느 정도 분위기가 되면 그때 가서 해야 한다"고 말해 현재로선 차기 일정이 불투명함을 시사했다.

6월 방북 연기 이유에 대해 정 전 장관은 "(남북간) 의사소통 채널이 있지만 서로 주고받는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지금은 좀 물리적으로 어렵게 됐다"며 "저쪽(북한)은 미사일 국면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현재로서는 그 부분을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 한다"고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이어 '6월 방북 연기 의사를 북한에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이런 형식(기자회견)을 통해서 의사 전달이 되는 것"이라며 "서로가 귀를 열어놓고 있는 만큼 국민을 상대로 설명하면 자연히 북쪽에 그 뜻이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방북 재고 요청설과 관련, 김 전 대통령측 최경환 비서관은 "버시바우 미국 대사는 평양을 방문하게 되면 워싱턴의 생각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방북 재고를 요청했다는 얘기는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

"北 미사일 발사땐 쌀 지원 중단"

이종석 통일장관…美, 대북 경제제재 재발동 검토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쌀과 비료 등에 대한 대북 무상원조를 계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은 지상배치 미사일 요격시스템을 실험 모드에서 실전 모드로 전환하고 대북(對北) 경제제재를 재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미사일 발사를 둘러싸고 남·북·미 관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21일 한나라당 김영선 대표에게 북한 미사일 위기에 관한 현안을 보고하면서 "미사일을 쐈는데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넘어가지는 않겠다"며 "쌀과 비료 등에 대한 지원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배석했던 이정현 부대변인이 전했다.

다른 배석자 역시 이 장관이 "미사일 발사가 이뤄지면 현재 진행 중인 개성공단 사업 같은 경우는 몰라도 추가 지원은 어렵지 않겠냐"며 "쌀이나 비료를 무상으로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미국 워싱턴 타임스는 20일 복수의 미 국방관리들의 말을 인용, "미국은 북한이 어떠한 장거리 미사일이라도 발사하기만 하면 '도발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며 "미 국방부가 지상배치 요격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가동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도 이날 "미 관리들이 이런 보도 내용을 (사실로) 확인했다"고 보도했고, AP 통신과 교도통신도 워싱턴 타임스 보도를 인용해 긴급 뉴스로 타전했다.

미국 언론의 요격시스템 가동 보도는 북한 외무성 아시아국 부국장급인 이병덕 일본담당 연구원이 미사일 발사와 관련, "2002년 북일 평양선언과 지난해 9월 6자회담 공동성명 등 어떠한 성명에도 구속되지 않으며, 이는 국가 자주권에 관한 문제로 어디에서도 비방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한 직후 나온 것이다.

또한 교도(共同)통신은 21일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 조지 부시 행정부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클린턴 정부 때 완화한 대북(對北)경제제재를 재발동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빌 프리스트 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20일 미 CBS방송 '얼리 쇼'에 출연, 미국은 북한이 시험을 강행할 경우 군사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오늘밤의 월드컵

<22일>

체코	E	이탈리아	함부르크/23:00/KBS1·MBC·KBC
가나	E	미국	뉘른베르크/23:00/KBS2

<23일>

일본	F	브라질	도르트문트/04:00/KBS2·MBC·KBC
크로아티아	F	호주	슈투트가르트/04:00/KBS1·MBC·KBC

스코어 보드

독일	(3승)	3	A	0	(2승1패) 에콰도르
폴란드	(1승2패)	2	A	1	(3패) 코스타리카
스웨덴	(1승2무)	2	B	2	(2승1무) 잉글랜드
파라과이	(1승2패)	2	B	0	(1무2패) 트리니다드

韓, 백만장자 증가율 세계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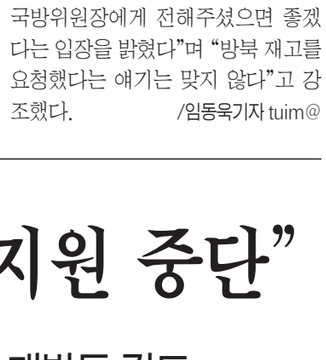
7만1,000명→8만6,000명 1년새 21% 늘어나

지난해 우리 나라가 세계에서 백만장자 증가율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릴린치와 캡제미니가 20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부유층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고액순자산보유자(High Net Worth Individual : HNWI)'로 정의된 한국 내 백만장자 증가율은 21.3%로 세계에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HNWI는 일반적으로 기본 주거용 주택을 제외한 순금융자산을 100만달러 이상 소 유하고 있는 백만장자를 의미한다.

한국 내에서 HNWI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지난해 54%의 종합주가지수(KOSPI) 오름세를 보인 증시 활황이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 한국 내 백만장자의 수는 2004년에 7만1천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8만6천명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19.3% 증가율로 2위에 올랐으며 러시아(17.4%)와 남아프리카공화국(15.9%), 인도네시아(14.7%), 홍콩(14.4%)이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